

세미나 초록

성명	조 인호
소속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발표 주제	첨단재생의료기술동향과 KFRM 역할
발표 내용	<p>재생의료기술의 글로벌시장은 '20년 260억원에서 '30년까지 1,280억원으로 연평균 17.5%의 성장률을 예상한다. 이는 기존 합성의약품의 성장률이 5.7%인 것으로 비교하면 재생의료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2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임상건수는 2,200여건으로 세포치료제, 면역항암제 순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임상2상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다. NTIS로 분석된 '16년에서 '21년 동안의 우리나라 재생의료 관련 연구 건수는 5,800여건이며 투자규모는 1조6,900억원으로 연간 1인당 1.8억원 수준이며, 이는 일본의 14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여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동법의 미진한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통과, '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1년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기초/원천연구에서 임상 2상까지의 전주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였다. 사업단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30년까지 총 10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21년부터 '23년까지 152개 과제를 선정, 과제별로 년 3억원에서 12억원을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총 109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자들을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신규 21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초기 '21년부터 '23년 지원한 과제 중 종료 및 단계진입 중단 과제 23개를 고려하면 올 '24년도에 지원하는 전체 과제 수는 150개이다. 본 강의는 재생의료기술의 글로벌 동향, 한국의 재생의료정책 및 본 사업단의 개요, 사업추진전략, 성과, 선정과제 분석 및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청중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p>